

주부들이 원하는 아파트 실내공간의 평면구성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ior Space Composition of Apartment desired by Housewives

이선미¹⁾ / Lee, Sun-Mi

이연숙²⁾ / Lee, Yeun-Sook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current trends and to predict the future trends of spac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floorplans drawn by housewives as their ideal apartment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is research used data from a competition held in 1993 by a housing construction company. Among 3,012 floorplans collected, 1,232 were selected by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ome major features were interpreted as current trends; respondents wanted new rooms that could accommodate various functions, separated the private spaces from public space in center and desired to have interior garden. 2) Some significant features compared with past trends were interpreted as future possible trends; they wanted to expand the verandah both visually and actually, put importance on the number of bathrooms, and have the space for outdoor living and leisure activities.

키워드 : 평면구성특성, 아파트실내공간, 내용분석, 미래주택특성

1. 서론

1.1 문제제기

주택의 양적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60년대 초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70년대로서 도시인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형태이며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도시내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말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를 도시형 주거로 보편화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1995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율은 86.0%에 달하며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1.1%에 이르렀다¹⁾. 특히 전국 6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의 아파트 비율은 43.4%에 달하여²⁾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의 대량생산은 도시내 절대부족을 보이는 주택수요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거주자의 생활을 담는 그 내부공간이 거주자의 생활을 수용하지 못하여 주거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아파트 내부공간에 대한 부적절한 계획은 실내공간에 대한 개조행위 (박은순, 1987; 홍선경, 1994; 이현정, 1993; 김민정, 박태병, 1998) 및 주거공간 불만족으로 인한 이주를 초래하는 요인(백남화, 1990; 최미라, 1994; 홍형우, 1994)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거주자의 실내 개조행위는 국가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경제적 손실이며, 궁극적으로 주거이동행위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³⁾에서 거주자들은 신도시 아파트의 내장재 및 시설물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거주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저품질의 획일화된 내장재 및 시설물의 사용과 마감재의 부실시공, 불막이상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내부공간의 기능상 이유 외에도 장식적 의미나 거주자의 개성, 취향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실내를 개조하는 경우가

정희원, 광주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환경디자인전공 전임강사, 이학박사
감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1)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연감, 1997

2)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연감, 1997

3) 조성명, 강순주, 서울대학교 신도시, 분당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 한국주거학회지, 8(1), 1997, pp.77-85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⁴⁾. 따라서 거주자의 실내공간 구성특성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이제까지 거주자들의 실내공간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 연구방법은 연구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면개발에 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설문지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노력으로 거주자 특성을 생활양식과 관련시켜 구체화함으로써 공간선호와 관련지으려고 하였다(신영숙, 1991; 박영순 외, 1994; 조성희, 1994; 김미희, 이유미 1998). 사용자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집단 패널 워크숍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안까지 유도해 내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고⁵⁾, 설계의 각 과정에 선택, 상담, 협의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SAR(Society of Architecture Research)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⁶⁾.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법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파악된 요구가 실제 평면개발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며 통합적인 연구방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려는 주택시장에 대응하여 평면개발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주택내부 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려는 일환으로 최근 한 건설업체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인 주택'에 대한 설계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주부들이 직접 그린 이 평면도는 과거의 주거에서 경험한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된 주거에 대한 이미지 뿐 아니라 앞으로 가족들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주거에 대한 표현이므로 주거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실내공간에 대한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면도는 거주자의 주거실내공간 요구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분석자료로서의 잠재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1.2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주부들이 직접 그린 미래에 살고 싶은 이상적인 아파트 실내공간의 평면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주부들이 원하는 실내 평면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되고 있는 실내공간의 구성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각 실의 배치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공간간 관계특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주부들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주택 평면구성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과정 중 두드러진 성향은 아니지만 미래 주택의 실내공간계획에 반영할 새로운 선호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주택평면 개발에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현재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소비주체인 우리나라 주부들이 바라는 아파트 평면구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일면을 정리, 진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주거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현재는 널리 실현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주택 평면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미래 성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법이며 분석대상 자료는 주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단위평면이다. 이 평면도는 환경심리학에서 발전시킨 지필검사법의 일종으로서 개인의 경험, 요구등을 종이와 연필을 이용하여 그려내는 방법⁷⁾으로 연구대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1993년 (주)S 건설에서 실시한 주부 설계공모전에 응모된 아파트 평면도로서 이 자료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현재의 가족들이 거주하기 원하는 이상적인 아파트 평면'을 우편엽서 크기의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에 가로와 세로로 선이 그려진 섹션지위에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 것이다. 이 공모전의 홍보는 6개 주요 일간지와 3개 주부대상 월간잡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루 이루어졌으므로 그 표본의 기반은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수집된 3,012부의 평면도 중 우편 접수과정에서

7)지필검사법(paper and pencil test)은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경험과 내면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으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사법(projective test)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투사법은 피험자가 자신에 관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거나 표현을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이나 언어를 제시하여 그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김동기의 11명, 심리학개론, 양서원, p. 39, 1997). 인지도(cognitive maps) 혹은 심적지도(mental maps)들은 환경심리학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형성된 공간에 대한 이미지와공간경험등을 종이과 펜을 이용하여 외현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분석도구이다(Bell, P. A., Fisher, J. D., B. A., Greene, T. C., Environmental Psychology, pp. 60-61,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90).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평면도 역시, 응모자 자신이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과거의 주거공간에 대한 경험과 미래생활공간에 대한 요구를 표현한 것으로 환경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심적지도의 일종이다.

4)신영숙, 도시중산층 아파트가구의 생활양식과 생활의장 태도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2), 1991, pp. 55-60

5)이연숙, 신화경, 유수연, 소형아파트 거주가 생활행태에 대응하는 주거단위내외의 공간계획은 위한 소집단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8, 1994, pp. 64-73

6)이훈, 박우장, 김수암, 사용자참가에 의한 공동주택의 단위주호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3), 1994, p.26

도면을 식별하기 불가능해진 경우와 해외에서 참여한 업체의 경우 기존 우리나라 주부들과는 달리 거주지역에 따른 경험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이에 분석이 가능한 나머지 2,927 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따른 인구규모 비율에 따라 비례적 유증표집방법을 이용하여 무선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무선표집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추정수의 약 40% 수준에서 응답자 수를 산정한 후 표집하였다. 이에 총 1,232개의 업체가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되었다 <표 1>.

<표 1> 분석대상 자료의 지역별 분포

지역 구분	전국인구분포		공모선 응모자의 분포			분석된 사례 수
	f	(%)	분석가능	분석불가	계	
서울	10,603,250	(42.4)	1,089	20	1,109	332
부산	3,795,892	(8.7)	104	1	105	91
인천	1,816,328	(4.2)	165	2	167	66
대전	1,049,122	(2.4)	97	2	99	34
대구	2,227,979	(5.1)	95	4	99	57
광주	1,138,717	(2.6)	50	2	52	31
경기	6,154,859	(14.2)	607	20	627	182
강원	1,579,859	(3.6)	73	1	74	46
충청	3,402,492	(7.8)	151	4	155	93
전라	4,576,322	(10.6)	134	5	139	119
경상	6,531,618	(15.1)	343	9	352	181
제주	514,436	(1.2)	19		19	
기타				15	15	
계	43,390,374	(100.0)	2,927	85	3,012	1,232

f: 빈도수

2.2 분석도구의 개발

분석도구는 총 3차에 걸쳐 개발된 것으로 1차 개발은 1994년 5월에 문헌 연구를 통해 평면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작성한 뒤 실제 평면도를 보면서 작성된 내용의 적부를 조사하였으며, 1994년 12월에 2차로 50개의 평면도를 무선표집한 후, 설정한 연구문제와 문헌연구들을 기초로 분석 유목과 세부항목을 보완설정하였다. 설정된 항목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파악하며 추가될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50개의 평면도를 추가로 무선표집하여 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딩 당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시키고자 3차 분석도구 개발과정이 1995년 2월에 이루어졌다.

2.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평면도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공간에 대한 선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통일된 조사항목을 결정 짓는 작업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경우 여러 단계에 걸친 분석항목 결정작업과 평정자들간의 분석 유목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단계에 걸친 신뢰도 검증 계획을 설정하였다. 평정자는 주택설내디자인을 전공한 연구원 6인으로 3인이 한 팀이 되어 있으며 팀내 평정자간, 팀간의 평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단계의 분석과정에서는 먼저 각 항목에 대한 3인의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하였고 이때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 2차로 분석한 후

다시 모여 그 결과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2차에서도 일치를 보이지 않는 항목은 두 팀이 함께 모여 토의한 후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제 1단계에서는 각 팀별로 30개의 동일한 평면도를 가지고 총 206개의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차에서는 A팀의 경우 75.8%, B팀의 경우 78.7%, 2차 분석에서는 각각 88.1%와 89.3%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분석항목이 삭제되었고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며 판단이 모호한 항목들은 더욱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결정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분석 항목 27개만을 대상으로 각 팀별로 70개의 평면도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분석에서 A팀의 경우 76.7%, B팀의 경우 77.6%, 2차 분석에서는 각각 84.3%와 89.4%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인 분석항목이 결정되었다. 3단계 분석은 본 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함으로써 자료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단계 분석에서 비교적 일치도가 낮았던 10항목에 대해 팀별로 100개의 평면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1차 분석에서 A팀의 경우 80.1%, B팀의 경우 82.1%, 2차 분석에서는 각각 88.4%와 90.2%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2.4 분석도구의 작성

평면도의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내용

구분	분석기준	세부내용
일반 사항	가족특성	가족수, 가족 형태
	주거특성	주거형태
	지역특성	거주지역
평면 구성 특성	공간의 구성특성	방의 개수, 종류
	각실의 배치특성	상대적 크기, 접면 배치선호, 주출입구 위치, 욕실위치, 세탁실과 다용도실 위치, 정원위치, 창고위치
	공공간 관계특성	공동공간과 개인공간, 공동공간간 관계, 현관과 다른공간, 안방과 다른공간

거주자의 일반사항은 우편엽서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수, 가족형태, 주거형태, 거주지역등을 파악하였다. 평면구성특성으로는 공간의 구성특성, 각 실의 배치특성, 각 공간간 관계특성등을 분석하였다.

2.5 분석 방법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단순빈도와 퍼센트를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⁸⁾은 가족 특성과 주거 특성 그리고 거

8) 가족특성은 가족수와 가족형태인데 가족수는 평면도에 나타난 방의 명칭과 수를 통해 가족수를 유추하였고, 가족형태는 노인방과 같은 구체적인 명칭

주지역 분포상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수는 4인인 경우가 48.8%로 가장 많고 5인이 21.4%, 6인이 15.2%로 나타나 평균 가족수가 4.48인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67.4%로 가장 많았고 노부모만 모시고 사는 경우가 28.9%, 노부모와 기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2.6%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42.6%이며, 아파트가 45.4% 연립이 8.4%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거주지역은 행정구역별 인구비율에 맞도록 비례적 유증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서울, 경기도, 경상도의 순이며 특별시가 26.9%, 직할시가 22.0%, 시가 40.5%, 군 이하가 10.6%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우리나라 인구 및 주택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구분포에 비해⁹⁾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경우 확대가족, 아파트 거주자, 도시거주자의 구성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2 공간의 구성특성

<연구문제1> 공간의 구성특성은 어떠한가

공간구성특성은 방의 갯수와 공간의 종류를 통해 파악하였다. 방의 갯수는 가족들의 취침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을 지칭한 것으로 거실, 부엌, 식당, 욕실, 창고 등은 제외하였다. 방의 갯수는 4개가 44.6%이며, 3개가 31.1%, 5개가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84개의 방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종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기존 주택에 있는 공간들과 새롭게 출현하는 공간들로 나누어지며, 새롭게 출현한

<표 3> 원하는 공간의 종류

본표 공간		0-20%					21-40%					41-60%					61-80%					81-100%				
		화장실3					노부모방					자녀방2, 뒷베란다, 다용도실					화장실2					거실, 현관, 화장실1, 안방, 안베란다, 창고, 부엌/식당, 자녀방				
새롭게 요구 되는 공간	신내 공간	후크수, 드레스실, 놀이공간, 주부공간, 손님실, 동거친척실, 컴퓨터실, 운동공간, 가족실, 응접실, 홈바, 사우나, 부엌방					다목적실, 유식공간,					서재														
	작업 공간	건조실, 작업실, 장독대, 보일러실, 보조주방										세탁실														
	반 옥외 공간	연못, 마당, 놀이터, 텃밭															정원									

공간들은 침실 외에 요구되는 특수 용도의 실내공간, 작업공간, 옥외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기존 주택에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성향을 살펴보면 거실,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주거형태와 거주지역은 엄서에 기록된 출신인의 주소지를 통해 추정되었다.

9) 1990년 인구 및 주택조사결과, 가족유형중 확대가족의 비율은 18.9%이며, 주택유형중 단독주택은 66.3%, 아파트는 22.6%로 나타났으며, 행정구역별 거주지역은 특별시가 6.9%, 직할시가 22.0%, 시가 40.5%, 군 이하가 10.6%로 나타났다.

안방, 자녀방, 부엌, 현관 등은 거의 대부분의 평면에 표현되고 있는 기본적인 공간들이었다. 자녀실과 노부모실과 같은 개인 침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살펴보면 화장실이 2개 있는 경우가 77.2%이고, 3개 있는 경우는 8.6%였다. 앞베란다는 94.4%이며, 뒷베란단의 설치비율은 앞베란단의 절반정도인 48.9%이고, 창고는 84.0%이며, 다용도실은 44.1%로 나타났다.

새롭게 출현한 여유공간으로는 서재에 대한 요구가 전체의 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목적실과 휴식공간은 20% 이상, 취미실, 드레스실, 놀이공간, 작업실 등은 10% 이상 배치하고 있었다. 특별히 취미실(16.2%), 운동공간(7.6%), 휴식공간(20.8%), 놀이공간(14.4%), 홈바(5.0%), 사우나실(0.5%) 등은 하나의 '아트리움' 혹은 '취미공간'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미래사회에 증폭될 여가를 집안에서 수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여가 시간이 많아져 동호인간의 교류 및 상호 가정방문이 잦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손님실이 주거내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¹⁰⁾. 본 연구의 결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손님실(9.1%)은 이러한 미래에 변화될 주생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작업공간으로는 세탁실이 50.6%로 가장 많았고, 세탁건조실과 작업실이 10%이상에서, 보일러실, 장독대, 보조주방이 10% 이하에서 요구되었다.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특성 자체가 강한 내부성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옥외개념의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정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74.0%, 연못이 18.3%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마당, 텃밭, 놀이터 등과 같은 전통적 옥외공간이 아파트 내부에 표현되고 있었다.

3.3 각실의 배치특성

<연구문제2> 각실의 배치특성은 어떠한가

전체적인 공간의 배치 특성은 공간의 상대적 크기, 전면배치 선호성향, 주출입구의 배치특성, 화장실의 배치특성, 세탁실과 다용도실의 위치, 정원의 배치특성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1) 공간의 상대적 크기

공간의 상대적 크기는 공간들 중 크기에 따른 공간의 종류를 파악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공간은 거실이 68.5%, 안방이 18.0% 부엌 겸 식당이 8.8% 순이며, 두번째로 큰 공간은 안방이 39.0%이고, 부엌겸 식당이 28.0%, 거실이 17.0%이며, 세번째로 큰 공간은 안방이 29.1%이고, 부엌겸 식당이 26.9%, 자녀방이 15.5% 순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로 큰 공간은 자녀방이 32.8%이며, 부엌겸 식당이 16.9%, 안방과 노부모방이 8.7%와 8.6%에 해당하였다. 다섯번째로 큰 공간의 종류는 자녀방 1,2가 각각 25.7%와 23.4%이며, 서재와 부엌겸 식당이 9.2%와 9.0%순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크기를 종합해 보면 거실, 안방, 부엌겸 식당, 자녀방, 그리고 노부모방과 서재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공간의 크기에 있어서 주목할 결과는 거

10) 장성수, 백혜선, 200년 주거와 주택의 모습, ICC, 10, 1993, pp.38-49

실이 안방과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규범에 의해 정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엌겸 식당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규모에 있어서도 주택내에서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면배치 선호특성

전면배치 선호특성은 안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전면이 넓은 형태에 대한 선호 성향에 관한 것으로 평면의 형태 및 전면에 위치한 공간의 종류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전면이 측면보다 넓은 평면형태가 70.8%이고 전면이 측면보다 좁은 평면 형태가 23.6%로 나타났다.

<표 4> 전면배치 선호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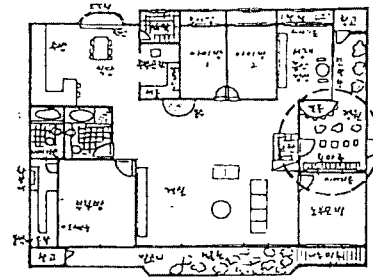
구분	f	(%)	N
전면선호 특성	전면이 넓은 평면형	869	70.8
	측면이 넓은 평면형	290	23.6
	사면의 길이가 비슷한 평면형	69	5.6
계	1,228	100.0	
전면배치 공간	거실	1,141	93.3
	안방	87	7.2
	노부모방	233	66.8
	자녀방	517	42.9
	부엌/식당	179	15.7
	욕실	165	13.5
	단독침원	62	6.8
	기타	432	35.1

f: 빈도수 N: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

전면에 위치한 공간의 종류는 거실이 93.4%, 안방이 7.2%, 노부모방이 36.8%, 자녀방이 42.0%, 부엌/식당이 15.7%, 화장실이 13.4%이며 기타공간이 3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거주자들이 여전히 전면이 넓은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다른 공간에 비해 거실과 개인실에 대한 중시도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평면에서 부엌/식당과 화장실의 위치가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였던 과거의 경향과는 달리 주택의 전면으로 배치되어 오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앞으로의 평면개발에 주목할 특성이라 할 수 있다.

(3) 주 출입구 배치 특성

주 출입구 배치특성은 대문, 현관문, 중문등의 배치관계를 통해 출입구 동선관계 및 프라이버시 요구를 파악한 것으로<그림 1>, 분석결과<표 5> 현관문만 있는 경우가 48.7%, 현관문과 중문이 있는 경우가 42.6%, 대문과 현관문이 있는 경우가 4.4%, 대문, 현관문, 중문이 모두 있는 경우가 4.3%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관문 하나로 주거내 외부가 걸성되던 과거의 아파트 출입구 배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주거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체의 51.3%가 현관문 외에 외부와의 배개공간을 요구하며 또한 8.7%는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단독주택의 마당과 같은 완충공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출입문을 중복하여 배치함으로써 이에 따라 형성되는 완충공간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주출입구 배치특성의 예: 대문과 현관문이 있는 경우

<표 5> 주출입구 배치 특성

주출입구 유형	f	(%)
대문, 현관문, 중문이 있는 경우	52	4.3
대문과 현관문이 있는 경우	53	4.4
현관문과 중문이 있는 경우	519	42.6
현관문만 있는 경우	593	48.7
계	1,217	100.0

f: 빈도수

(4) 욕실의 배치 특성

화장실의 배치특성은 갯수 및 위치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욕실의 갯수는 2개인 경우가 68.2%이며, 1개인 경우는 22.3%, 3개 이상이 9.5%로 나타나 욕실을 2개 이상을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욕실의 위치<표 6>는 욕실이 하나일때 위치는 거실쪽이 96.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두개인 때

<표 6> 욕실 위치에 대한 분포

욕실 위치	욕실1		욕실2		욕실3	
	f	(%)	f	(%)	f	(%)
거실 쪽	1,182	96.3	90	9.5	7	6.1
안방 내	22	1.8	696	73.6	25	21.7
노부모방 내	5	0.4	87	9.2	46	40.0
거실과 방사이	4	0.3	2	0.2		
자녀방 내	1	0.1	19	2.0	13	11.3
방과 방사이	1	0.1	24	2.5	4	3.5
기타공간 내			13	1.4	13	11.3
기타	13	1.1	15	1.6	7	6.1
계	1,228	100.0	946	100.0	115	100.0

f: 빈도수

두번째 욕실은 안방내가 73.6%, 그리고 세개인 때 세번째 욕실은 노부모실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때 화장실은 2개 이상을 요구하며 1개 있을 경우에는 가족원이 사용하기 쉽도록 공적 공간인 거실쪽에 위치하며 2개 이상일 때에는 개인실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 가족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부부방 혹은 노부모방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5) 세탁실 및 다용도실의 위치

세탁실과 다용도실의 위치에 대한 분석 결과<표 7>, 평면도 상에 세탁기를 표현하여 세탁실을 명확히 표현한 경우는 부엌 옆 내가 40.9%, 베란다가 24.6%, 다용도실 옆 내가 11.5%, 욕실 옆 내가 11.3% 순으로 나타났다. 다용도실의 경우는 부엌 옆 내가 68.1%, 베란다가 17.0%, 화장실 옆 내가 3.6%, 세탁실 옆 내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의 경우는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작업의 연결공간으로써 부엌근처에 배치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나 세탁행위를 탈의행위와 연계성있게 생각하여 욕실영역에 배치하려는 성향 역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알 수 있다.

<표 7> 세탁실과 다용도실 위치에 대한 분포

위 치	세탁실		다용도실	
	f	%	f	%
부엌옆/내	255	(40.9)	363	(68.1)
다용도실(세탁실) 옆/내	72	(11.5)	13	(2.5)
앞,뒤 베란다 내	154	(24.6)	91	(17.0)
욕실 옆/내	71	(11.3)	19	(3.6)
두 공간 사이	46	(7.4)	63	(5.7)
기타	26	(4.2)	17	(3.2)
계	624	(100.0)	533	(100.0)

· 두공간 사이이란 침실과 침실, 다용도실과 부엌, 화장실과 부엌, 침실과 화장실등과 같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공간과 공간사이에 위치하기 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f: 빈도수

(6) 정원의 배치특성

정원은 평면도 상에 식물을 표시한 경우로써, 갯수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표 8>, 정원의 갯수는 1개가 61.4%, 2개가 28.5%, 3개가 8.7%로 나타났으며, 평균 1.17개였다. 정원이 한개일 때 위치

<표 8> 정원 위치에 대한 분포

위 치	정원1		정원2		정원3	
	f	(%)	f	(%)	f	(%)
앞베란다내	616	(64.5)	29	(7.8)	5	(4.6)
현관	121	(12.7)	87	(23.4)	12	(11.0)
거실내	83	(8.7)	103	(27.7)	20	(18.3)
뒷베란다내	31	(3.1)	70	(18.8)	17	(15.6)
안방전면	22	(2.3)	10	(2.7)	6	(5.5)
노부모방전면	17	(1.8)	12	(3.2)	6	(5.5)
식당전면	14	(1.5)	12	(3.2)	9	(8.3)
자녀방전면	9	(0.9)	12	(3.2)	7	(6.4)
기타	43	(4.3)	37	(9.9)	27	(24.8)
계	1,228	(100.0)	946	(100.0)	115	(100.0)

f: 빈도수

는 앞베란다가 64.6%, 현관이 12.7%, 거실 내가 8.7% 순이며, 정원이 두개일 때 두번째 정원의 위치는 거실내가 27.7%, 현관이 23.4%, 뒷베란다 내가 18.8% 순이고, 정원이 세개일 때 세번째 정원의 위치는 거실, 뒷베란다, 현관 및 기타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원은 평균 1개 이상을 배치시킴으로써 정원에 대한 요구가 하나의 큰 공간을 원하기 보다는 작더라도 분산되어 주택 곳곳에서 자연을 느낄수 있는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정원의 위치는 앞베란다, 현관과 거실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격공간에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7) 창고의 배치 특성

창고는 베란다에 창고 표시가 된 경우를 포함하여 내부에 붙박이 장이나 반침을 제외한 폐쇄적인 공간개념의 창고, 수납을 위한 선반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창고의 배치특성은 창고의 갯수, 내부창고의 유무, 부엌전용창고의 유무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창고의 갯수는 1개인 경우가 65.2%이며, 2개인 경우가 26.4%,

3개 이상인 경우도 8.4%나 되었으며 평균 1.45개의 창고를 설치하고 있었다. 베란다쪽이 아닌 실내공간에 창고가 설치된 여부를 분석한 결과 34.0%가 실내에 창고가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부엌전용창고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부엌전용창고가 있는 경우가 1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아파트 공간내에서의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엌에서만 사용하는 전용창고의 도입 경향은 강한 수납적 요구외에도 부엌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배려로도 해석될 수 있다.

3.4 각 공간간 관계특성

<연구문제3> 각 공간간 관계는 어떠한가

공간간 관계성은 공간들간의 배치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의 배치관계, 공동공간간 배치관계, 현관과 다른 공간간 배치관계, 안방과 다른 공간과의 배치관계등을 분석하였다 <표 9>

<표 9> 공간간 관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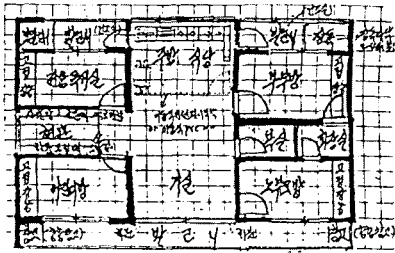
공간간 관계	f	(%)	N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으로 양분된 형태	599	(48.6)	
개인공간이 한쪽으로 집중된 형태	247	(20.0)	1,232 (100.0)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에 의해 분산배치된 형태	331	(26.9)	
공동공간이 양분된 형태	33	(2.7)	
기타	22	(1.8)	
LDK	335	(27.4)	
L-DK*	836	(67.5)	1,223 (100.0)
LD-K	12	(1.0)	
L-D-K	38	(3.1)	
기타	12	(1.0)	
진입 후 바로 거실- 정면배치	145	(11.9)	
진입 후 바로 거실- 측면배치	330	(27.0)	1,223
다른공간 지난후 거실정면배치	115	(9.4)	
다른공간 지난후 거실측면배치	633	(51.8)	
현관옆에 부엌배치- 직접진입	217	(17.6)	
현관옆에 부엌배치- 우회진입	72	(5.8)	1,223 (100.0)
현관과 연결된 별도 통로 진입	10	(0.8)	
현관과 부엌사이 여러공간배치	933	(75.7)	
안방 바로 옆에 부엌 배치	255	(20.7)	
안방과 부엌사이 다른공간배치	582	(47.2)	1,223 (100.0)
안방과 부엌사이 공동공간이나 2개이상의 공간을 배치	395	(32.1)	

* - 표시는 공간간 분리된 형태를 의미함

f: 빈도수 N: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

(1) 공동공간과 개인공간간의 배치관계

공동공간과 개인공간간의 배치관계는 공동공간인 거실 및 부엌/식당과 개인실과의 배치관계를 파악한 것으로<그림 2>, 이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에 의해 양분된 형태가 48.6%로 가장 많고,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에 의해 분산배치된 경우가 26.9%, 개인공간이 한쪽으로 집중배치된 형태가 20.0%로 나타났다. 거실,부엌/식당등이 중간에 위치하고 주변에 개인공간이 배치되는 양분과 분산배치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방의 갯수가 3-4개인 우리나라 아파트 내부구조를 감안하여 볼 때 자연스런 배치현상이다.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에 의해 양분되거나 분산배치 되는 형태



<그림 2> 공동공간과 개인공간간 배치관계의 예: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에 의해 양분된 경우

공동공간이 평면계획시 중심이 되는 배치이며, 개인실이 한쪽에 집중배치되는 형태는 사적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배치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분과 분산배치 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적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개인공간에 비해 면적도 넓고 개방제체인 공간을 중심에 두어으로써 폐쇄적인 아파트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공동공간간 배치관계

공동공간간 배치관계는 거실, 부엌, 식당간의 배치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분석 결과, 부엌과 식당은 개방되었으나 거실과는 폐쇄적인 형태인 L-DK형이 67.5%로 가장 높고, 거실, 부엌, 식당이 모두 개방적인 배치관계에 있는 LDK형은 27.4%, 세 공간이 모두 폐쇄적인 형태인 L-D-K형은 3.1%, 거실과 식당은 개방적이나 부엌과는 폐쇄적인 형태인 LD-K형은 1.0%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공동공간간 배치형태는 L-DK형과 LDK형으로 나타나, 공동공간의 배치유형중 공동-공간간의 배치관계가 비교적 개방적인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현관과 다른 공간과의 배치관계

현관과 다른 공간과의 배치관계는 거실 및 부엌과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 현관과 거실과의 배치관계에서는 현관에서 다른 공간(부도)를 지난 후 측면에 거실을 배치한 형태가 51.8%, 현관에서 진입한 후 측면에 바로 거실을 배치한 형태가 27.0% 진입 후 바로 정면에 배치된 형태가 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관을 통해 내부공간이 바로 노출되는 형태를 거부하는 것으로, 현관을 통해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방해 받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관과 부엌과의 배치관계를 파악한 결과, 현관과 부엌 사이에 많은 공간을 둔 배치가 75.7%로 가장 많고 현관옆에 부엌을 배치한 형태가 17.6%, 현관옆에 부엌을 배치했으나 진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치하지 않은 형태가 5.8%, 현관옆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 부엌에 진입하도록 한 형태가 0.8%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부엌공간의 작업효율화를 고려한 배치 개념으로써 현관 바로 옆에 부엌을 배치하여 직접 진입하도록 한 경우와 현관에 통로를 연결시켜 진입하는 경우가 총 18.4%로 나타났

다. 부엌과 현관과의 동선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주거 평면을 고려해 볼때 이 비율은 주택내에서 작업공간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성향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안방과 다른 공간과의 배치관계

안방과 다른 공간과의 배치관계는 안방의 이중성 여부와 안방과 부엌과의 배치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방의 이중성 여부는 안방에서 취침기능을 분리시킨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반응 수치는 낮으나(8%), 취침행위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행위들과 구분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부중심의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안방공간이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방과 부엌과의 배치관계는 안방과 부엌사이가 멀리 떨어져 배치되도록 계획한 형태가 32.1%이고 안방 바로 옆에 부엌을 배치한 형태가 2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방과 부엌간의 배치관계가 반드시 근접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방이 작업공간과의 동선개념보다는 하나의 사적영역으로 확보되기를 원하는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5 종합

분석항목에서 분포가 높게 나타난 평면의 전반적인 특성과, 분포는 낮지만 기존 평면과는 달리 새롭게 출현하는 특성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전반적인 평면구성특성의 분석결과 종합

분석내용	전반적인 특성	새로 출현한 특성
구성요소	방의 갯수 · 평균 3.8개	· 가족수보다 1개 더 많은 여유실 원함
공간의 종류	· 거실, 현관, 화장실, 부엌/식당, 개인실, 앞뒤베란다, 창고, 서재, 정원, 세탁실, 다용도실	· 여가 및 여유공간 출현 · 다양한 작업공간에 대한 요구 출현 · 아파트내 옥외공간 개념 도입 요구
공간의 크기	· 거실>안방>부엌/식당> 개인실	· 부엌/식당공간 크기 증대
전면 선호 성향	· 아파트 전면크기가 넓은 형태 선호 · 거실>안방>개인실>부엌/식당 순	· 자녀실과 부엌/식당의 전면배치 선호
배치특성	· 현관만 설치하거나 현관과 중문 설치	· 현관문 외에 중문과 대문설치 출현
화장실	· 2개이상 설치, 개인실 설치요구	· 화장실 개수 요구 증대(3개 이상)
세탁실	· 부엌, 베란다와 근접설치	· 화장실과 개인실주변 설치 출현
다용도실	· 부엌, 베란다와 근접설치	
정원	· 평균 1.17개/ 베란다, 현관, 거실	· 실내정원설치 요구 증대
창고	· 평균 1.45개	· 실내와 부엌전용창고 설치요구 증대
사공간/공공간	· 공동공간이 중앙에 위치한 형태	· 개인공간을 공동공간과 분리시키려는 경향
공동공간	· L-DK형	
관계특성	현관/거실 · 다른공간을 지난 후 거실배치	
현관/부엌	· 다른공간을 지난 후 부엌배치	· 근접배치 현상 출현
안방내 분리		· 침실분리현상 출현
안방/부엌	· 다른공간을 지난 후 부엌배치	· 부엌자체 공간확보 성향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설업체 주부설계공모전에 응시된 평면도를 분석한 연구로 전국적인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현재 선호되는 주거 실내평면의 특성과 미래 출현하게 될 새로운 평면적 특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현재 대다수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거평면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방의 갯수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는 가족수에 대응하는 침실 공간 소유를 위한 요구보다는 기능분화를 위한 요구 성향을 갖는다. 이는 새로 요구되는 방의 종류가 서재, 취미실, 손님실, 작업실, 휴식 공간등과 같은 새로운 용도의 공간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석된 내용이다.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면이 넓은 평면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전면에 배치되는 공간의 종류는 과거와는 달리 자녀실이나 부엌과 식당 공간이 위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거내 공간의 의미가 사용자의 권위와 위치를 반영하던 과거 성향이 실용적 측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거주자들은 공적 공간 중심으로 사적공간을 배치시키되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각각의 독립된 영역으로 확보하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공적공간간 관계는 L-DK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각 공간의 프라이버시는 거주자가 지각된 통제력을 갖고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공동공간 중심으로 내부에서 개방된 형태가 선호된다.

둘째, 미래 주거 평면변화 성향에 대한 예측을 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는 화장실과 부엌/식당공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화장실의 경우 과거에는 화장실 하나가 주거규모이었으나, 미래에는 안방이나 노인실과 같은 주요 개인실에 전용 화장실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엌과 식당은 과거에 주방만의 공간으로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였으나 미래에는 여성의 지위상승과 가족원의 가사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엌의 위치가 가족원의 접근이 용이한 주택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며 작업의 효율성이 높은 시설과 배치가 고려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의 변화성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적 특성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내에서 옥외생활을 즐기는 성향이 나타나 옥외개념인 앞뒤 베란다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하며, 여가수용이 보편화 될 것이므로 여가를 집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래에 주택을 중심으로 친척이나 취미 동호인의 모임이 빈번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여유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및 결론에 의거하여 차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이용된 평면도는 기존 자료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만 반투사적(semi-projected) 방법으로 인해 부분적 유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정보 즉, 가족특성이나 주택규모등과 같은 배경변인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유추 해석이 있을 부분은 더욱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계획에 보다 유용하고 확실한 제

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적 제안을 하여 오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소비자의 구체적 요구를 나타낸 디자인적 자료를 통해 그 안의 특성을 파악,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성향을 밝히려고 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방법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디자인분야는 타 학문과 달리 모든 학문에 공통되는 방법들은 물론 이 학문의 풍토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한 결과와 종래 방법론에 의해 제시된 결과가 얼마나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 주거문화의 성향을 현재 중요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향 및 현재 그 비중은 크지 않으나 종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성향을 의미있게 해석하여 예측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는 디자인 전문가의 노력으로도 성장하는 궤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성향이 보다 바람직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특성들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접근에 의해 소비자 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미희, 이유미, 주생활양식유형과 공동주택내부, 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2), 1998
2. 김민정·박태병, 집합주택 내부공간의 개조행위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1998
3. 김영주,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4.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1997
5.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1997
6. 대한통계협회,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 1권 전국편, 1990
7. 박영순, 신인호, 한정원, 황유진, 도시 아파트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선호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1), 1994
8. 박은순,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개선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9. 백남화, 아파트 입주가구의 이주동기와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0. 신영숙, 도시 중산층 아파트가구의 생활양식과 실내외장 태도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2), 1991
11. 이연숙·신화경·유수연, 소형아파트 거주자 생활행태에 대응하는 주거단위 내외의 공간계획을 위한 소집단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8, 1994
12. 이현정, 아파트개조실태와 실내공간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3. 이훈·박우장·김수암, 사용자 참가에 의한 공동주택의 단위주호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3), 1994
14. 장성수·백혜선, 2000년 주거와 주택의 모습, ICC, 10, 1993
15. 조성명·강순주, 서울근교 신도시, 분당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 한국주거학회지, 8(1), 1997
16. 조성희(1994),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주요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2), 1994
17. 최복화, 주거가치 체계정립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4), 1987
18. 최미라, 주거이동의 동기와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7), 1994
19. 홍선경,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개조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0. 홍형욱, 한국가족의 주거조절양상, 한국주거학회지, 5(2), 1994

<접수 : 1998. 11. 4>